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정서해소 프로그램 대상자 모집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우울증, 무기력증 등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7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북과학대학교 전문 교수를 초빙해 총 5회기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직장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에 운영한다.

또한 참석자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평가해 고위험군 해당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체계적인 상담과 개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팩스(635-2102)로 발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감 스트레스 감소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해 으름 정읍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상반기 광경병 예방 집중 실시

정읍시는 시민들의 광경병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사육 중인 개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1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경병 예방접종은 지역 위축 공수의사를 통해 실시하며, 백신은 시에서 6500마리분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예방접종에 따른 시술비 5000원(한 마리 당)은 견주가 부담하면 된다.

3개월령 이상 개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예방접종은 시에서 지정된 동물병원 2곳(제이애스 동물병원, 조은동물병원)에서 접종 가능하다. 외장형 칩이 등 록된 반려견주는 반드시 인식표 또는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접종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사육 중인 개체 또는 동 지역 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마친 개체다.

시 관계자는 "광경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과 우제류 가족에게 감염될 경우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주곡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고창군, 2016년 동부리마을로 시작... 2021년 심원 죽곡마을에 이어 5년째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고창읍 주곡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 화장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 생활안전 확보와 위생환경 인프라 등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곡마을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77%를 차지하고, 65세이상 인구가 40%에 달하며,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아 주민 안전시설 및 주택 정비사업, 마을주민 전체의 역량강화 및 어르신 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고창군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추가로 마을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5월 초 전라북도 자

체평가를 거쳐 5월31일 균형발전위원회 대면 평가를 받았다.

주곡마을 주민들은 올해 2월부터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이장 유윤상)을 중심으로 마을에 현 실태와 필요사업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했으며, 고창군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고창군은 주곡마을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에 걸쳐 약 20여억원을 투입해 마을안길 정비, 재해위험지 정비, 빈집정비, 노후주택정비, 노후담장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은 2016년부터 4개 지구에 선정돼 고창읍 동부리마을, 신림면 가평마을 등 2개 마을을 사업 완료했고, 고창읍 성두마을, 신림면 죽곡마을 2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한전 전신주 등 이장물 이설 부당 부가세 환수 추진

정읍시, 2018-2022년 7억 3409만원 대상

정읍시가 한전주, 통신주 등을 옮겨 설치하는 데 쓰인 행정비용 중 부당하게 청구됐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한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정전주와 통신주를 옮기는데 쓰인 비용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추가세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 소멸시효가 5년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시가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7억 3409만 원이다.

시는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해 고문 변호사와 환수 가능여부에 대해 논의를 나눴고 한국전력, KT, 전북에너지 서비스 등과 3차례 이상 협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7월 중에 부가가치세 환수를 위한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부당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수에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농업용 드론 활용 현장 연사회 개최

고창군이 올해부터 14개 전체 읍면에 농업용 드론을 지원해 마을 단위로 드론 공동 방제가 가능하게 하고, 청년 농업인을 필두로 농작업 지원단을 구성해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농업용 드론의 안전한 사용법 교육 등 드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일 신림면 농암마을 일원에서 현장 연사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해 벼 재배 농업인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사회에서는 10여대의 드론을 이용한 생력화 기술(비료살포, 농약살포 등)을 선보였다.

특히 고창군은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농업용 드론 운용 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36농가가 드론 자격을 취득했으며, 올해 5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마을단위 병해충 공동 방제단 10대, 청년농업인 농작업지원단 5대, 발작물 방제지원 1대 등 농업용 드론 총 16대를 지원했다.

농업용 드론은 대규모 벼와 밭작물, 사료작물, 과수원 등에 비료와 제초제 살포에 사용되고 있으며, 작물의 생육 상태 확인 등에 활용돼 높은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노동시간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같이 드론을 활용한 농업기술의 접목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 위기에 대응하고 병해충 적기 방제, 청년농업인의 역량 확대와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자탄소 농업 기술 확대를 위해 농업용 드론의 보급과 관련 기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정읍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정읍시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단체관광객을 관내에 유치하여, 관내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일관광은 내국인 관광객 15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이 관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 먹을 경우 1인당 5000원을 지원한다.

숙박관광은 내국인 관광객 15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은 10명 이상이 관내 음식점에서 2~3식 이상 먹는 조건으로 1인당 1만 2천 원 2박은 2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내국인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은 30인 이상으로 당일 관광 1인당 5000원 1박당 7000원을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7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정읍시 관광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6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지역관광이 활기를 찾고,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119명 모집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을 포함하여 관내 해수욕장 5개소의 개장을 앞두고 오는 16일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안전관리요원은 모두 119명으로 작년 대비 22명이 증원되어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의 운영관리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응시자격은 만8세 이상~만 55세 이하로, 인명구조 자격증이나 등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응급처치 관련 자격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구조 자격증에 한해서는 만 65세 이하까지 응시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들은 구조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방역요령 등 직무교육을 받은 후 관내 해수욕장 5개소(변산,모항,격포,고사포,위도)에 배치되며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모집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에 안내돼 있다.

최용덕 해양관광 팀장은 "올여름 관내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